10. 경주마의 경우 생산된 망아지를 친자감별하는 이유?

경마는 본래 영국 왕실 귀족들이 경주를 통해 자신들의 말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그 혈통을 잇고자 우수한 말을 번식 개량하는 수단으로 시작되었다. 현대에 이르러 시설과 장비의 현대화, 시행 규모의 대형화, 일반 대중의 다수 참여로 점차 대중 레저스포츠로 발전되었다.

더러브렛은 시조말 3두에 의해 발생된 품종으로서 지난 300여 년간 경주능력이 우수한 말을 개량 생산하기 위해 우수한 말끼리의 교배에 의해 번식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유전법칙에 따라 선대의 우수한 유전형질(경주능력 등)이 다음 세대 또는 그다음 세대에 발현하게 되는 것이므로 혈통이 좋은 말이 우수한 성적을 낼 확률이 높다.

말의 혈액형 감정은 개체식별과 친자판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동물유전학회(ISAG)에서 정한 통일된 국제 기준에 따라 각국의 혈액형 감정기관의 기술수준을 평가하여 공표함으로써 판정 결과의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다. 등록기관에서는 감정기관의 혈액형 검사 결과에 따라 등록을 실시함으로써 등록 및 혈통서의 신뢰성을 과학적으로 보증받게 되는 것이다. 말의 혈액형은 이론적으로 약 280억개로 분류할 수 있으나, 더러브렛종에서는 적혈구 항원형 7개 시스템 21종, 혈액 단백질형 8개 시스템 27종을 국제적으로 최소 검사 항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혈액형 검사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친자판정 등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전자(DNA)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출처 : 한국마사회 한국혈통서국제공인

(난지축산연구소 / 064-754-5708)